

일라이저 - 넘버 나인

예언자는 거짓말했다

Jeff Pippenger

2023-10-11

우리는 지난 글을 "거짓말하는 영"을 다루는 본문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다음은 그 본문에 있는 단락 중 하나입니다.

성화되지 않은 사역자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진을 치고 있다. 그들은 한 입으로 그리스도와 이 세상의 신을 함께 찬양하고 있다. 겉으로는 그리스도를 영접한다고 하면서, 바라바를 끌어안고, 그들의 행위로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라고 말한다. 이 글을 읽는 모든 이들은 유의하라. 사탄은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자랑해 왔다. 그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교회 안에 존재하기를 기도하신 그 연합을 깨뜨리려 한다. 그는 말한다. "내가 나아가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속일 수 있는 자들을 속이고, 비판하고, 정죄하고, 왜곡하겠다." 큰 빛과 큰 증거를 받은 교회가 속임과 거짓 증언의 아들을 받아들이면, 그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기별을 버리고, 가장 불합리한 주장과 거짓된 가정과 그릇된 이론들을 받아들일게 될 것이다. 사탄은 그들의 어리석음을 비웃는다. 그는 진리가 무엇인지 알기 때문이다. 사역자들에게 보내는 증언, 409.

'속임과 거짓 증언의 아들'이 큰 빛과 큰 증거를 받아온 교회에서 환영받게 하라, 그러면 그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버리고 가장 불합리한 주장과 거짓된 가정과 거짓된 이론을 받아들일 것이다. 1863년, 밀러파 재림운동은 배도한 개신교가 사용하던 불합리하고 거짓된 방법론으로 '되돌아갔고',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에 대한 윌리엄 밀러의 해석을 거부했다. '되돌아감'이라는 주제는 그들이 대장을 뽑아 이집트로 돌아가기로 결심했을 때의 민수기 14장의 반역자들로 표상되었다.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민수기 14:4.

'배도한 개신교로의 돌아감'이라는 주제는 예레미야에게서도 나타났는데, 15장에서 그는 타락한 개신교인들이 그에게로 돌아올 수는 있으나 그는 그들에게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말을 들었다.

나는 조롱하는 자들의 모임에 앉지 않았고 즐거워하지도 않았다. 주의 손이 내 위에 있었기에 나는 홀로 앉았다. 주께서 나를 분노로 가득 채우셨기 때문이다. 어찌하여 나의 고통이 영원히 계속하며, 나의 상처가 낫기를 거부하는 불치가 되었나이까? 주께서 참으로 내게 거짓말하는 자 같으시며, 마르는 물과 같으시겠나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네가 돌아오면 내가 너를 다시 데려오리니 네가 내 앞에 서리라. 네가 천한 것 가운데서 귀한 것을 골라 내면, 너는 내 입과 같이 되리라. 그들이 네게로 돌아오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내가 너를 이 백성에게 견고한 놋 성벽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너와 싸울지라도 너를 이기지 못하리라.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하고 건져낼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예레미야 15:17-20.

아마도 배교한 개신교로 돌아가지 말라는 원칙의 가장 분명한 예언적 예시는 북이스라엘 열 지파의 첫 왕 여로보암에게 책망의 말씀을 전한 불순종한 선지자의 이야기에서 찾을 수 있다.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쉬소서. 내가 당신에게 상을 주리이다. 하나님의 사람이 왕에게 이르되, 당신이 내게 당신의 집 절반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당신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며 네가 온 길로 다시 돌아가지 말라' 하셨음이니이다. 이에 그가 다른 길로 가고, 벳엘로 오던 길로는 돌아가지 아니하였더라. 열왕기상 13:7-10.

불순종한 선지자는 하나님께로부터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는 명령을 받았다.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사르디스로 대표되는 개신교에서 나왔으며, 그리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었다. 불순종한 선지자는 자신이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아야 함을 잘 알고 있었지만, 여로보암의 나라에 속한 한 거짓 선지자가 하나님께서 불순종한 선지자가 그 거짓 선지자의 집으로 돌아가 그와 함께 먹으라고 말씀하셨다고 그에게 말했다. 하나님의 지시에도 불구하고 그는 바로 그렇게 했다. 그가 거짓 선지자의 음식을 먹기 시작하자, 성경은 사마리아의 선지자가 거짓말했음을 분명히 말한다.

이제 벳엘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와서 그날 벳엘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행한 모든 일을 그에게 알리고, 그가 왕에게 한 말들도 아버지에게 고하였다. 아버지가 그들에게 이르되, 그가 어느 길로 갔느냐? 하니,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간 길을 그의 아들들이 보았더라. 그가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에 안장을 지우라 하매, 그들이 그에게 나귀에 안장을 지우니, 그가 그 위에 타고 하나님의 사람을 뒤쫓아가서 상수리나무 아래에 앉아 있는 그를 만나, 그에게 이르되,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너냐? 하니, 그가 이르되, 그러하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으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너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너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이곳에서는 너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이르시기를, 거기서 떡을 먹지 말며 물을 마시지 말고, 네가 온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라 하니,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나도 너와 같이 선지자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한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그를 너와 함께 네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였으나, 이는 그가 그에게 거짓말함이었더라. 이에 그가 그와 함께 돌아가 그의 집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시니라. 열왕기상 13:11-19.

불순종한 선지자는 사마리아의 거짓 선지자와 함께 먹고 마셨다. 이는 그가 배도한 선지자의 메시지를 받아들이고 주님의 메시지를 거절했다는 뜻이다. 바로 그날 그가 충실히 전했던 메시지였다. 그는 돌아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그렇게 했다. 화이트 여사는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 준다. "큰 빛과 큰 증거를 받은 교회가 속임과 거짓 증언의 아들을 영접하면, 그 교회는 주께서 보내신 메시지를 버릴 것이다." 밀러주의자들의 역사에서 첫째 천사는 그 영광으로 온 땅을 밝게 했다. 1840년에 첫째 천사의 메시지가 전 세계의 모든 선교지에 전해졌다.

"주께서 능력과 큰 영광으로 이 세상에 속히 오신다는 소식은 진리이며, 1840년에 그 소식을 선포하는 많은 목소리가 일어났다." Manuscript Releases, 9권, 134.

그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밀러주의 재림운동은 배도한 개신교의 방법론이라는 "거짓"으로 되돌아가, 하나님께서 윌리엄 밀러를 통해 보내신 "주님의 기별"을 버렸다. 그들은 엘리야가 제시한 모세의 기별을 버렸고, 밀러주의 역사 초기에 받아들인 그 "거짓"은 마지막에 믿게 되는 "거짓"을 대표한다; 곧 라오디게아적 재림운동에 강한 미혹을 가져오는 그 "거짓"이다.

또 멸망하는 자들 가운데는 모든 불의한 속임수가 있나니, 이는 그들이 구원을 얻게 하는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다. 이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한 미혹을 보내사 거짓을 믿게 하시리니, 진리를 믿지 아니하고 불의를 기뻐한 모든 자들로 하여금 다 정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데살로니가후서 2:10-12.

우리는 성경 예언의 여섯째 왕국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개신교의 뿔과 공화주의의 뿔이 보여 주는 병행하는 역사와 관련하여, 상징으로서의 엘리야의 역할을 입증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적어도 내게는, 1863년의 모든 쟁점들을 예언적으로 하나로 묶어 내는 데 따르는 어려움은 '우회적 논리'라는 개념과 맞닿아 있는 여러 상호 연관된 맥락들 때문이다. 직선적인 논리가 언제나 최선의 접근이지만, 신성한 진리들을 식별하고 그 진리들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일은 어렵다. 그 진리들은 성경 곳곳에 "조금은 여기, 조금은 저기" 흩어져 있기 때문이다.

그가 지식을 누구에게 가르치며, 교훈을 누구에게 깨닫게 하겠느냐? 젖을 떼인 자들, 젖가슴에서 떼어진 자들에게로다. 이는 명령 위에 명령, 명령 위에 명령, 줄 위에 줄, 줄 위에 줄, 여기 조금, 저기 조금이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사야 28:9, 10.

당신의 대상 독자층이 당신이 다루는 핵심 진리에 익숙한 이들과 그 모든 것이 처음인 이들로 구성되어 있을 때에도, 이는 또한 어려운 일입니다. 이 글에서 개괄하려는 진리의 거의 모두는 하박국의 판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내가 '우회적인 논리'를 쓰는 것처럼 들릴까 봐, 실제로 그곳에 가기에 앞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1863년에 라오디게아의 밀러파 재림운동은 질투의 우상을 세웠다. 그 질투의 우상은 라오디게아 재림주의의 네 세대 중 첫 번째 세대를 대표한다.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제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어라. 내가 북쪽을 향한 길로 눈을 들어 바라보니 제단의 문 어귀, 곧 북쪽 입구에 이 질투의 형상이 있더라. 에스겔 8:5.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네 세대는 성경의 여러 본문에서 표상되어 있지만, 나는 에스겔 8장을 주된 근거로 사용한다. 그 이유는 8장이 9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에스겔 9장에서는 14만 4천의 인침이 묘사되어 있으며, 『증언』 제5권에서 화이트 자매가 이 사실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화이트 자매의 언급에서는 인침이 이루어질 때 예루살렘의 두 부류의 예배자들을 분명히 다룬다. 에스겔도 같은 일을 하며, 인침을 받지 못하는 부류는 8장에서 대표된다.

자신들의 영적 타락을 슬퍼하지도, 다른 이들의 죄를 애통해하지도 않는 부류는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못한 채 남게 될 것이다. 주께서는 손에 살육의 무기를 든 자신의 사자들에게 명하신다: '그의 뒤를 따라 성읍을 두루 다니며 치라. 너희 눈이 아끼지 말며, 불쌍히 여기지 말라. 노인과 청년, 처녀와 어린아이와 여자들을 다

진멸하라. 그러나 표가 있는 어떤 사람에게도 가까이하지 말라. 그리고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그러자 그들은 그 집 앞에 있던 늙은 자들에게서부터 시작하였다.'

여기서 우리는 교회, 곧 주님의 성소가 하나님의 진노의 타격을 가장 먼저 느낀 곳이었음을 본다. 하나님께서 큰 빛을 주시고 백성의 영적 유익을 수호하는 자로 서 있던 장로들이 맡겨진 책무를 저버렸다. 그들은 예전처럼 기적과 하나님의 능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것을 굳이 바라거나 찾을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했다. 시대가 달라졌다고. 이러한 말들은 그들의 불신을 더욱 굳게 하고, 그들은 말한다. 주님은 선도 행하지 않으시고 악도 행하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의 백성을 심판으로 벌하시기에는 너무 자비로우시다. 이와 같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는 외침이, 다시는 나팔처럼 그들의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의 백성에게 그들의 죄과를, 야곱의 집에게 그들의 죄를 보여 주지 않을 자들의 입에서 나온다. 짓지 않으려는 이 병어리 개들이 모욕당하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정의로운 징벌을 당하는 자들이다. 남자들과 처녀들과 어린아이들이 모두 함께 멸망한다. 증언, 5권, 211.

여덟째 장은 네 세대 가운데 넷째 세대에서 해에게 절하는 것으로 묘사된 예루살렘의 자들—'교회'—을 묘사하고 있다.

그가 나를 여호와의 집 안뜰로 데리고 갔는데, 보니 여호와의 성전 문, 현관과 제단 사이에 스물다섯 명가량의 남자들이 있었고, 그들의 등은 여호와의 성전을 향하고 얼굴은 동쪽을 향하여, 동쪽을 바라보며 해를 경배하고 있었다. 그때 그가 내게 이르되, 인자야, 네가 이것을 보았느냐? 유다의 집이 여기서 행하는 이 가증한 일들을 가볍게 여기는 것이냐? 그들이 이 땅을 폭력으로 가득 채우고, 다시 돌아와 나를 노하게 하였도다. 보라, 그들이 그들의 코에 가지를 대었다. 그러므로 나도 분노로 대하리라. 내 눈이 아끼지 아니하고, 내가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큰 소리로 내 귀에 부르짖을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라. 에스겔 8:16-18.

열 명의 정탐꾼의 악한 보고와 마찬가지로, 태양을 숭배하는 반역의 스물다섯 지도자들은 주님의 분노를 '사게 했다'. 일요일 법령은 예언자들이 장차를 가리키며 말한 '도발의 날'이다. 9장은 같은 시점에 하나님의 인을 받는 자들을 묘사하는데, 이는 8장을 단순히 반복하고 확장하여 설명하기 때문이다.

"이 하나님의 종들의 인침[요한계시록 7장]은 에스겔에게 환상 중에 보인 것과 같은 것이다." 목사들에게 보내는 증언, 445.

1863년에 라오디게아적 재림주의의 첫 세대가 광야를 떠돌기 시작했다. 1863년에 '질투의 형상'을 지목하는 예언적 역사는 아론의 금송아지였다. 그 금송아지의 예언적 특징은 그것이 짐승의 형상이었고 금으로 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금은 바벨론의 상징이므로, 아론의 금송아지는 바벨론의 짐승의 형상이었다. 짐승의 형상은 오직 교회와 국가의 결합, 그리고 그 관계를 교회가 통제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그런데 '짐승을 위한 우상'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그 우상은 두 뿔 가진 짐승에 의해 만들어지며, 짐승을 위한 우상이다. 그것은 '짐승의 우상'이라고도 불린다. 그러므로 그 우상이 어떤 것이며 어떻게 형성되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짐승 자체, 곧 교황권의 특성을 연구해야 한다.

초대 교회가 복음의 단순함에서 벗어나 이교의 의식과 관습을 받아들이면서 부패했을 때,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잃었다. 그리고 사람들의 양심을 통제하기 위해 세속 권력의 지지를 구했다. 그 결과 교황권이 생겨났는데, 이는 국가 권력을 통제하고 그것을 자신의 목적, 특히 '이단'을 처벌하는 데 사용하는 교회였다. 미국이 짐승의 우상을 만들기 위해서는, 종교 권력이 세속 정부를 통제하여 국가의 권위가 교회의 목적을 이루는 데에도 사용되도록 해야 한다. 대쟁투, 443.

아론이 만든 송아지는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있을 때 만들어졌다. 둘째 계명은 우상 숭배를 금하고,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분이라고 밝히면서 하나님의 성품을 부분적으로 설명한다.

너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어떤 것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 너는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는 아버지들의 죄악을 자녀들에게 삼사 대까지 벌하며,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들 수천 명에게는 자비를 베푸느니라. 출애굽기 20:4-6.

아론의 금송아지 형상은 우상이었으므로 질투의 우상을 나타낸다. 이는 모세로 하여금 십계명의 첫 두 돌판을 내던져 깨뜨리게 만든 의로운 분노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이다. 우리는 1863년의 위조 도표가 아론의 금송아지로 상징되었음을 보이고자 한다. 금송아지는 거짓 신을 대표했기에, 하나님은 아론의 금송아지를 향해 자신의 질투를 드러내셨다. 그 송아지는 하나님에 대한 위조된 표상이었다. 아론은 그것이 그들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구해 낸 신들을 대표한다고 선포했다. 바로 그 역사 속에서 모세가 깨뜨린 두 돌판은, 실제로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 내신 참 하나님의 품성의 '사본'이었다. 1863년에 제작된 그 위조 도표는 질투의 우상이다. 그것이 모세의 맹세의 일곱 때를 제거함으로써 하박국 2장의 두 판을 깨뜨렸기 때문이다.

나는 1843년 도표가 주님의 손에 의해 인도되었고, 수정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그 숫자들은 그분이 원하신 그대로였으며, 그분의 손이 그 위를 덮어 일부 숫자에 있는 오류를 감추셨기 때문에,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볼 수 없었다. 초기 저술, 74, 75.

또한 엘렌 화이트는 1843년 도표를 변경하지 말라는 명령에 '영감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라는 단서를 덧붙인다.

"나는 옛 도표가 주님께 의해 인도된 것이며, 영감에 의하지 않고서는 그 어떤 수치도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보았다. 나는 그 도표의 수치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대로이며, 그분의 손이 그 위에 있어 몇몇 수치에 있는 한 오류를 가려 그분의 손이 거두어질 때까지 아무도 그것을 보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을 보았다." 스폴딩과 매건, 2.

니콜이 1850년 도표를 준비하고 제작했을 때, 제임스와 엘렌 화이트는 오티스 니콜의 가족과 함께 살고 있었다. 1850년 도표에서 '수정'된 유일한 것은 1843년 도표에 표시되어 있던 '1843'이라는 연도를 '1844'로 바꾼 것이었다. '수정'된 것은 하나님이 손으로 덮어 두셨던 그 '실수'를 바로잡은 것뿐이었다. 1843년 도표가 1850년 도표로

'수정'된 바로 그 집에는 여선지자의 영감이 있었고, 레위기 26장의 '일곱 때'는 1843년 도표와 마찬가지로 그 도표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둘째 계명은 이 예언적 퍼즐의 또 다른 조각을 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질러진 죄악을 벌하러 오실 때까지 세대를 헤아리신다는 사실을 밝혀 준다. 1863년에 밀러주의 운동이 끝나면서 제칠일안식일예수재림교회의 네 세대 중 첫 번째 세대가 시작되었다.

십계명의 두 돌판은 하박국의 두 판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성소 봉사에서 죄를 포함한 유일한 제물이었던 오순절의 요제로 흔들어 드린 두 떡도 표상한다. 십계명이 주어질 때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오순절의 성령 부으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 그리고 밀러파의 두 도표의 역사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능력은 모두 늦은 비 때 성령의 부으심이 최종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표상한다. 오순절의 두 요제 떡은 늦은 비 때 기치로 높이 들려지는 십사만 사천을 대표한다.

오순절에 흔들어 드리는 떡은 죄를 상징하는 '누룩'을 넣어 만들도록 되어 있었지만, 그 누룩은 굽는 과정에서 소멸되었다.

그때,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모여 서로 밟을 지경이 되자, 그는 먼저 제자들에게 말하기 시작했다.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그것은 위선이다."
누가복음 12:1.

흔들어 바친 떡은 첫 열매 제물이었다.

너희는 너희 처소에서 흔들어 드릴 떡 두 개를 가져오되, 각각 십분의 이 분량으로 할지니라. 고운 가루로 만들고 누룩을 넣어 구울지니, 그것들은 여호와께 드리는 첫 열매니라. 레위기 23:17.

십사만 사천은 마지막 때의 첫 열매 예물이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 산에서 있고, 그와 함께 십사만 사천이 있어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더라. 또 내가 하늘로부터 나는 소리를 들었는데, 많은 물소리와 같고 큰 우레 소리와도 같았으며, 또 수금을 타는 자들이 그들의 수금을 타는 소리도 들리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불렀는데,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십사만 사천 외에는 그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들이라. 이들은 어린 양이 어디로 가시든지 따라가는 자들이요,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하나님과 어린 양께 처음 익은 열매가 된 자들이며, 그들의 입에는 거짓이 없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요한계시록 14:1-5.

엘리야로 대표되는 마지막 때 결코 죽지 않는 예배자들의 부류는, 언약의 사자에 의해 그들에게 임하는 정결의 불이 레위의 자손들에게서 누룩을 철저히 구워 제거하기 때문에, 죄를 완전히 이기게 될 것이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다. 너희가 찾는 주께서 홀연히 그의 성전에 오실 것이며,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가 이를 것이다. 보라, 그가 오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그의 임하시는 날을 누가 견디며, 그가 나타나실 때 누가 설 수 있겠느냐? 그는 제련하는 자의 불 같고

표백하는 자의 잿물 같으니, 그는 은을 제련하고 정결하게 하는 자처럼 앉아 레위의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과 은처럼 그들을 연단하여 그들이 여호와께 의로운 제물을 드리게 하리라.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제물이 옛날 옛적 날들과 같이, 이전 해들과 같이 여호와께 기쁨이 되리라. 말라기 3:1-4

"옛적과 같은" 제사는 오순절에 드리는 두 덩이 떡의 요제이다. 그것은 제물로 들어 올려졌으며, 거리에서 죽임당한 두 선지자를 지목하고, 일요일법 위기의 시작에 그들이 기치로 하늘로 들려 올려지는 것을 가리킨다.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내자, 그는 그 송아지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신들이라고 선언하고, 이어 주님께 드리는 축제를 선포했다.

그가 그들의 손에서 그것들을 받아 그것을 주조하여 송아지를 만들고 조각칼로 다듬었다. 그러자 그들이 말하였다. "이스라엘아, 이것이 너를 이집트 땅에서 이끌어 낸 네 신들이라." 아론이 그것을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공포하여 말하였다. "내일은 여호와의 절기이다." 출애굽기 32:4, 5.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에서 갈라져 나왔을 때, 이스라엘의 초대 왕 여로보암은 두 도시에서 의도적으로 거짓 예배를 도입하고, 자신의 두 금송아지가 그들을 이집트에서 이끌어 낸 신들이라고 주장하며 아론과 같은 선언을 했고, 아론이 그랬던 것처럼 거짓 절기도 제정했다.

예로보암이 마음속으로 말하였다. 이제 나라가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겠구나.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집으로 올라가 제사를 드리면, 이 백성의 마음이 다시 그들의 주, 곧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다. 이에 왕이 의논하고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 그들에게 말하였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일이 너희에게 너무 수고롭다. 이스라엘아, 너를 이집트 땅에서 올라오게 한 너희 신들이 여기 있다. 그는 하나를 베델에 두고 다른 하나를 단에 두었다.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백성이 그 하나 앞에 경배하러 단까지 가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는 산당의 집을 만들고, 레위 자손이 아닌 백성 가운데서 가장 낮은 자들을 택하여 제사장으로 삼았다. 예로보암이 여덟째 달 그 달 열닷새에 유다에 있는 절기와 비슷한 절기를 정하고 제단 위에 제사를 드렸다. 그는 자기가 만든 송아지들에게 희생을 드리려고 베델에서도 그와 같이 하였고, 자기가 만든 산당들의 제사장들을 베델에 세웠다. 그는 자기 마음대로 정한 그 달, 곧 여덟째 달 열닷새에 베델에서 자기가 만든 제단에 올라 제사를 드렸고,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절기를 정하여 제단 위에 제사하며 분향하였다. 열왕기상 12:26-33.

단은 심판을 의미하며 국가를 상징하고, 베델은 하나님의 집을 의미한다. 아론의 반역과 여로보암 왕의 반역에서처럼, 그 상징들은 미국에서의 일요일 법령 때 궁극적으로 일어나는 교회와 국가의 결합을 가리킨다.

일요일법은 재림운동의 끝에 일어나며, 재림운동의 시작에 1844년 여름에 개신교의 뿔로 규정되었던 그 운동은 공화주의의 뿔과 법적으로 연합했다. 그러므로 아론과 여로보암의 배도는 1863년과 곧 다가올 일요일법을 모두 상징한다.

언약의 사자가 다른 어떤 지파가 아니라 "레위의 자손"을 정결하게 하시는 이유는, 아론의 금송아지 반역 때 모세의 편에 선 이들이 바로 레위인들이었기 때문이다. 그들의

신실함으로 인해 그들은 제사장 직분을 맡은 지파로 세워졌는데, 이 영예는 본래 각 지파의 장자들로 구성되도록 정해져 있던 것이었다. 그래서 여로보암은 그의 가짜 제사장들이 레위의 자손에서 나오지 않도록 했고, 대신 그의 제사장들을 "레위의 자손이 아닌, 백성 가운데 가장 낮은 자들"로 삼았다.

레위 자손은 주일법 위기 동안 기치 또는 요제로서 불로 정결하게 되는 자들이다. 말세의 주일법 위기의 역사는, 새롭게 식별된 개신교의 뿌리 공화주의의 뿌리와 법적으로 결합되었던 1863년의 위기에 의해 예표되었다. 우리가 방금 언급한 본문들을 검토하기 시작하기 전에 다루어야 할 역사적 흐름이 하나 더 있다.

그 선은 1856년을 나타내며, 이에 대해서는 다음 기사에서 다루겠습니다.

단 8장 14절에 제시된 바와 같이 성소의 정결을 위하여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것, 단 7장 13절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인자께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어깨 나아오신 것, 그리고 말라기가 예언한 주께서 그의 성전에 임하심은 모두 같은 사건을 묘사한 것이다. 또한 이것은 마태복음 25장에서 그리스도께서 열 처녀의 비유로 묘사하신 혼인에 임하시는 신랑의 오심으로 나타나 있다. 대쟁투, 426쪽.